

요르단 거주 시리아 난민 부모의 자녀 양육과 시리아 귀환*

김희정**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 전문위원

김예원***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석사과정

신다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이 연구는 요르단 거주 시리아 난민 지원 중단 및 시리아 귀환에 대한 글로벌컴팩트와 국제적 논의가 커지는 시점에 요르단 거주 시리아 난민 부모의 자녀 양육과 시리아 귀환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요르단 이르비드와 압만 지역에서 시리아 난민 가정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는 한국문화원 소속 한국 국적의 난민 활동가 7명에 대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리아 난민 부모자녀는 정착기간이 1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전쟁과 폭력 트라우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이러한 정신건강을 고려한 심리 및 양육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시리아 난민 부모를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때 성 역할 구조 및 정체성, 가족 규모에 대한 인식과 이해, 그리고 시리아 난민 부모의 문화적 특징을 고려한 구체적인 양육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요르단 거주 시리아 난민을 위한 난민 글로벌컴팩트 및 귀환정책은 시리아 및 요르단 내 시리아 난민 가족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시리아 난민 부모의 자녀 양육과 시리아 귀환을 탐색하여 시리아 난민 부모와 자녀에 대한 지원 및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시리아 난민 부모, 요르단, 자녀 양육, 시리아 귀환, 난민 글로벌컴팩트

I. 서론

전 세계 난민 수는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가장 많은 난민이 발생한 시리아의 경우 전쟁이 발발한 2011년부터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68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UNHCR, 2023).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시리아 난민은 주로 인근 국가로 이동한다. 그중 요르단은 시리아 난민을 세 번째로 많이 받는 국가이다. 요르단에 등록된 난민 중 시리아인들은 656,762명으로, 이들 중 80%

* 이 논문은 2023년도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의 지원을 받아서 연구되었습니다.

** 제1저자 mokren@snu.ac.kr

*** 교신저자 yewon2@snu.ac.kr

는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29.7%)과 시리아 접경지역인 이르비드(19.6%)에 거주하고 있다(UNCHR, 2023).

‘21세기 최악의 인도적 재난’이라고 불리는 시리아 전쟁은 인접국과 강대국의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로 인해 대규모의 난민 사태를 발생시켰고 장기화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시리아인권관측소(SOHR)에 따르면 2011년 전쟁이 발발한 이후 2024년 3월까지 약 51만 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연합뉴스, 2024). 전쟁은 인적자본, 물리적 인프라 그리고 사회 기반시설을 파괴하고 시리아인을 극심한 빈곤으로 내몰았다. 더불어 현재 시리아에서는 지난 2년간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식료품 가격이 오르며 식량난을 겪고 있다(ARABNEWS, 2024). 1970년 하페즈 알-아사드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시리아의 집권을 시작하면서 강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유지함으로써 내부의 불안을 억누르고 집권을 정당화하였다. 하지만 불안의 씨앗은 결국 2011년 내전을 촉발해 사회 시스템 붕괴와 불안을 가져왔다. 시리아는 50년 전보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고 현재는 ‘아랍의 겨울’로 불리고 있다.

국제사회는 난민 수 증가 및 난민 위기에 따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책임의 불균형이 발생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18년 12월 17일 유엔 총회에서 난민 글로벌컴팩트(Global Compact on refugees: GCR)를 채택하고 난민 귀환을 추진하고 있다. 난민 글로벌컴팩트는 국제적 협력 없이는 난민 상황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난민 문제에 대한 보다 예측 가능하고 공평한 책임 공유를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UNCHR, 2023). 난민 글로벌컴팩트의 네 가지 주요 목표는 호스트 국가에 대한 부담 완화, 난민 자립 강화, 제3국 솔루션에 대한 접근성 확대, 안전하고 존엄하게 출신국에 귀환할 수 있는 지원 조건이다(UNCHR, 2023). 전쟁 장기화와 난민 유입이 지속됨에 따라 주변국에서도 난민이 경제와 인프라에 부담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들의 자발적 귀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난민 글로벌컴팩트에 따라 요르단 거주 시리아 난민들은 현재 시리아 귀환을 권고받고 있다. UNHCR은 20만 7,500건의 난민 귀환을 도왔으며 난민을 수용하였던 주변 국가들은 현재 시리아 난민 귀환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상황이다. 터키는 유럽 연합과 난민 협정 이후 370만 명에 달하는 시리아 난민을 수용 중이었으나 47만 명을 본국으

로 돌려보냈으며(연합뉴스, 2021), 이라크에서 머물고 있는 시리아 난민 25만 명의 귀환을 논의 중이다(연합뉴스, 2023).

난민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존엄한 귀환을 위한 난민 본국의 지원 조건”이 필요하고 이는 난민 글로벌컴팩트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난민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 안전하게 살기를 원한다. 일례로 2017년 미얀마 군부 탄압을 피해 방글라데시로 피난 간 로힝야 난민들의 귀환을 위해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 난민 귀환을 추진했지만 ‘안전 보장 문제’로 협상이 여러 번 결렬되었다. UNHCR의 조사에 따르면, 시리아 난민 중 63%는 ‘언젠가’ 시리아로 돌아가고 싶다고 응답했다. 그뿐만 아니라 요르단에 있는 대부분의 난민은 시리아가 안전할 때 귀환하기를 희망했다(Barbelet, Veronique, and Cecil Wake, 2017). 요르단 외교부는 시리아 난민이 자발적으로 귀환하여 사회적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책임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주요르단 대한민국 대사관, 2024).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시리아 내부 상황으로 인해 시리아 난민들은 본국으로 귀환 시 정권의 보복이나 폭력을 당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여전히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ARABNEWS, 2024).

한편 국제적으로 난민 귀환의 성공적인 사례로 알려진 브룬디에도 명암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브룬디 난민들은 자발적으로 귀환하였고 귀국자와 비(非) 귀국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재통합에 있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된다(Franses, 2017). 하지만 브룬디의 경우 난민 귀환 이후 본국에서의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었다. 우선, 브룬디 인구의 70%가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으며(Kouassi Yeboua, and Mustapha Jobarteh, 2024) 내전과 난민으로 인해 브룬디 가정 내에 ‘사랑의 결핍’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 가정 내 아버지의 부재는 가구의 경제적 여건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에도 어려움을 가중시킨다(Courtois, 2016).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관계에 대한 불신은 가족들 사이에서도 긴장감을 높였고, 부모의 보살핌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와 불안정한 환경에서 양육하는 부모의 불안감이 상승하였다. 시리아의 난민 귀환 사례 연구가 매우 부족한 가운데, 브룬디와 같은 타 국가의 귀환 사례는 시리아 난민 귀환과 관련한 분석 및 제언에 교훈을 줄

수 있다.

시리아의 경우 내전 이후 12년 이상 경과되면서 요르단 내 시리아 난민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부족으로 난민 지원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유엔세계식량계획(United Nations World Food Programme, WFP)에 따르면 요르단 내 시리아 난민 중 취약계층으로 분류된 도시 난민은 2021년 기준 1인당 월 21\$를 지원받았지만, 코로나19 시기 공여국들이 해외 원조를 자국민에게 돌리면서 자금 부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2021년 7월부터 자금 부족으로 우선순위 결정에 따라 요르단 내 시리아 난민 2만 1,000명이 식량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Xinhua, 2021). 2023년 7월에는 전례 없는 자금 위기로 요르단 내 시리아 난민에게 지원하는 월간 식량을 대폭 축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이전부터 난민 캠프 외부에 사는 도시 난민들에 대한 현금 지원 금액을 3분의 1로 줄인 상태였다(WFP, 2023).

난민들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은 정신건강 및 육체건강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난민으로 정착한 지 5년이 지나면 우울증과 불안 장애의 비율이 증가하며 불안한 생활이 이어지고 적절한 치료 부재로 발병률이 높아진다(Giacco et al., 2018). 난민들이 정착 이후 사회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고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주거 불안 등 사회·경제적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요르단 내 시리아 난민의 경우 방 당 거주 인원은 평균 2.34명으로 캠프는 3.57명, 도시는 2.10명이다. 여성이 가장일 경우 가구의 소득 대부분은 현금과 식량 지원에서 나오는 반면 고용 소득은 매우 낮았다(Stillman et al., 2022). 이러한 여성 가장의 경우 심각한 정신 장애(우울증 및 불안)의 발생 위험이 훨씬 더 높으며(Bogic et al., 2015),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는 만성 통증, 신체 건강 관련한 삶의 질 저하 등 육체 건강과 관련이 있다. 특히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리아 난민들은 실항 이후 당뇨병, 고혈압, 암과 같은 만성질환이 더 심해졌다. 열악한 주거 환경과 수질 오염은 질병의 주요 원인이며 높은 생활비 및 의료 비용이 건강 문제와 관련 있다(Al-Rousan et al., 2018). 요르단 내 시리아 난민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에 장벽이 있어 감기, 고혈압 등 전염성 질병과 비전염성 질병에 모두 높은 부담을 안고 있다(Khadra et al., 2022). 시리아 난민 가구의 43.4%에서 한 명 이상의 가구 구성원이 이전에 만성 질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다(Doocy et al., 2016).

난민 부모의 정신건강이 취약한 경우 자녀와의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리아 난민은 이주국 별로 다른 이주 여정, 망명 절차와 이민정책을 따라야 하며,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광범위한 차별, 실업 및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환경에서 사회적 지원 및 인적 네트워크를 상실하는 등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된다(Khamis, 2022). 또한 망명 과정에서 폭격 및 사망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위협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대부분 PTSD, 주요 우울 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 MDD), 불안 등 정신 장애를 앓고 있을 수 있다(Sá FHL et al., 2022).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가 심리적 고통과 신경증의 수준이 더 높다. 난민의 경우 정착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여성이 경제적 책임과 더불어 자녀 양육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본국과 다르게 변화한 성 역할로 인해 여성에게 극심한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hamis, 2022). 정착한 나라에서의 정착 기간이 길수록 PTSD의 유병률이 낮고 감정 조절 능력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지만(Khamis, 2019) 부모의 지원과 긍정적인 가족 기능이 여전히 보호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El-Khani et al., 2018).

난민 캠프에서 거주하거나 난민 이주 과정을 경험했던 아동의 경우 위협 요인이 누적될수록 심리적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며 이러한 정신 질환은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시리아 난민 아이들은 이주 과정에서 일부는 총격에 휘말리는 등 전쟁과 폭력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다(Sirin and Rogers-Sirin, 2015). 시리아 난민 아동이 주로 겪는 질환은 PTSD, 수면 장애를 동반한 불안증, 우울증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Fazel and Stein, 2002). 또한 감정 조절 장애(Emotional Disturbance, ED)와 같이 감정의 조절 어려움과 심리 사회적 부적응 현상도 나타난다(Miles et al., 2015). Bahçeşehir의 시리아 난민 아동 연구에 따르면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아동들이 PTSD 증상을 나타내며, 44%가 우울증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했다(Oppedal et al., 2018). 또한 난민 아동은 전쟁 지역에서 온 영향과 낯선 문화에 적응하는 것에 고통을 받는다(Fazel and Stein, 2002). 특히 요르단 내에 시리아 난민 아동의 경우 트라우마에 노출된 경험과 우울증 유병률이 높아 장기적인 정신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다(Dehnel et al., 2022).

전쟁을 경험한 시리아 난민 아동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족 환경, 부모 및 양육자와의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El-Khani et al., 2018). 부모의 지원과 긍정적인 가족 기능은 전쟁과 트라우마를 경험한 아동들을 보호하므로 이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El-Khani et al., 2018). 가족은 난민 부모와 자녀가 정착국에 적응하고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중요한 안전기지이며 지지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제 이주와 재정착은 불안정한 생활을 야기하고 이러한 생활은 난민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은 광범위하고 파괴적이기 때문에 난민 부모의 스트레스가 자녀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hamis, 2022). 난민 부모의 취약해진 정신건강은 부정적인 양육의 위험도를 증가시켜 자녀의 심리사회적 결과를 악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외상 경험이 있는 부모는 자신의 내적 애착 표현에 곤란을 겪으며 부모-자녀 관계가 손상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녀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모의 능력이 약화된다(Sim et al., 2018).

난민 부모와 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을 살펴보는 것은 난민 부모의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 아동과 어머니의 대화는 그 대화가 정서적 혹은 관계적 주제를 다룰 때 본질적으로 애착 관계의 질과 관련된다(Laible, 2004). 트라우마를 겪은 가족들의 의사소통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비극적인 사실을 매우 혼란된 방식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자녀의 심리정서적 적응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Dalgaard et al., 2020). 어머니와 자녀 간의 협력적이고 통합된 대화가 결핍되는 경우 높은 수준의 공포를 느끼거나 보호받지 못할 때 나타나는 아동의 정서적 표식이 무시될 수 있다. 아동이 안전감을 느껴야 하는 상황에 그러한 요구가 거부당하거나 채워지지 않게 되면 아동은 공포로 인한 각성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어 정서적 발달에 손상을 입게 된다(Lyons-Ruth, 2003).

시리아 난민 귀환이 구체화되고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요르단의 시리아 난민 부모 및 양육에 대한 연구가 매우 드물며 특히 시리아 귀환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연구는 없는 상황이다. 해외에서 진행된 시리아 난민 가정에 대한 연구는 부모의 트라우마로 인한 어려움(Sim et al., 2018; Sá et al., 2022), 난민 가정 아동의 정신건강(Dehnel et al., 2022; Fazel and Stein, 2002), 난민 가정에 대한 심리적 개입(El-Khani et al., 2018; Gillespie et al., 2022) 등으로 난민 부

모 자녀의 수용국에서의 안정적인 적응 및 정착을 전제로 한 주제가 주를 이룬다. 난민 부모들은 정착지에서 자녀의 정서적, 행동적 변화와 양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부모가 자녀 양육을 개선하고 처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제한된 상황에서도 양육 관련 조언을 필요로 하며 정보를 얻으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El-Khani et al., 2017)은 정착지에서의 적응에 중요하다. 그러나 난민 부모들은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고 그러한 정보에 관해 대화할 수 있는 대상과 기회가 부족하며(El-Khani et al., 2018) 특히 시리아 본국으로의 귀환에 대한 국가 간 그리고 국제적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혼란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시리아 난민 부모가 귀환과 정착이라는 현안 속에서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상을 살펴보고 이들에게 필요한 자녀 양육의 지침과 지원이 무엇인지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난민에 대한 글로벌 레짐¹이 변화하고 난민 글로벌컴팩트의 등장으로 시리아 난민의 귀환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이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요르단 내 시리아 난민 활동가를 대상으로 시리아 난민 부모의 자녀 양육과 귀환을 탐색하고자 한다. 난민 부모의 양육지원은 난민 가정 아동의 성장 및 발달과 더불어 난민 가정의 안정성을 돕는 효과적이고 인도적인 방법이다. 이 연구를 통해 요르단 거주 시리아 난민 부모와 아동의 양육 환경 속에서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요인을 확인하고 난민 가족의 측면에서 양육지원과 난민 귀환정책의 실효성을 살펴봄으로써 난민 지원과 국제개발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리아 난민 가족의 정착과 귀환 의사에 따른 실질적인 양육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¹ 이병하(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글로벌이슈브리프, 2023)에 따르면 기존 글로벌 난민 레짐의 두 축은 1951년 난민 협약과 유엔난민기구였으나, 난민에게 부여되는 보호의 양과 질 부분에서 개별 국가가 궁극적 재량을 지내게 되는 문제, 난민 레짐 밖에 있는 정치논리에 의해 영향을 받는 현상, 국가간의 협력에 강제성을 부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기존 레짐이 난민 위기 대응에 여러 한계를 보이게 되자 새로운 해결책으로서 난민 글로벌컴팩트가 등장하였고 이를 글로벌 난민 레짐이 변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이 연구에서는 요르단 거주 시리아 난민 부모의 양육과 귀환을 살펴보기 위해 주 요르단 한국문화원(KCCJ) 소속 한국인 활동가 7명을 대상으로 2차례의 FGI를 실시하였다. 한국문화원은 암만과 이르비드에 위치한 NGO로 요르단 문화부에 등록된 기관이다. 한국문화원은 요르단에 한국을 소개하고 홍보하며 요르단의 다양한 영역에서 화합을 도모하는 자선, 문화, 교육 활동을 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대상의 연령대는 40~50대이며 요르단에서 활동한 기간은 3~14년이다. 연구에 참여한 활동가들은 모두 아랍어로 난민들과 소통하며 활동하고 있으며, 활동가들의 면담을 포함한 연구 절차는 한국어로 진행되었다.

활동가의 활동 대상자는 요르단 내 시리아 난민 가정으로 부모와 자녀들의 생활근거지는 주로 암만과 이르비드였다. 면담 중 등장하는 람싸(Ar-Ramtha)는 요르단과 시리아 국경 인근의 소도시를 의미하며 요르단 북부 최대 도시인 이르비드(Irbid)와 거리가 가까워 시리아 난민의 주거 밀집도가 높다(Beni Yonis et al., 2020; Van Raemdonck, 2023). 이에 다수의 선행연구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난민의 건강과 주거 상태, 문화와 트라우마 등을 탐색한 바 있다(Rehr et al., 2018; Rizkalla·Segal, 2018; Al-Fahoum et al., 2015). 이르비드와 암만은 요르단 내 시리아 난

표 1 FGI 대상 인적 사항

구분	성별	나이	요르단 활동기간	활동지
A	남	50대	14년	암만
B	남	40대	6년	이르비드
C	남	40대	9년	이르비드
D	남	40대	8년	암만
E	여	40대	6년	이르비드
F	여	40대	9년	이르비드
G	여	40대	3년	이르비드

민의 8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최대 밀집지역이며 연구참여자들이 이 지역을 대상으로 중장기 활동을 하고 있어 분석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이 연구에서는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시리아 전쟁 이후 난민의 삶을 양육과 귀환의 측면에서 탐구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초점집단면담을 통해 수집한 질적 자료는 현상의 탐색적 분석을 수행하는 본 연구에 적합하다. 탐색적 연구는 기존 연구가 많지 않은 주제를 연구하여 새롭고 통합적인 지식을 생산하는 데 유용하며, 현상을 밝혀 본질을 드러내고자 하는 질적 연구의 접근은 연구 대상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을 폭넓게 고려하여 연구 주제와 관련한 통합적인 틀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다(Swedberg, 2020). 따라서 요르단에 거주하는 시리아 난민의 삶에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면담 결과를 분석하는 것은 난민 부모의 상황과 가치관, 신념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며, 초기 연구로서 그들의 자녀 양육과 귀환을 탐색하는 데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위해 2023년 8월 중순부터 이르비드 지역에 거주하는 시리아 활동가 7인을 대상으로 면담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 2023 하계 요르단 SNU공헌단에서 진행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전에 실시되었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연구에 참여한 세 명의 연구자들이 직접 기획 및 진행하였으며 시리아 난민 부모의 모집과 부모교육 수요조사는 한국문화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한국문화원의 난민 가족 사례를 관리하는 관계자와 사전 회의를 통해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등 전반적인 연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협의하였다. 조사 협조에 동의한 활동가를 대상으로 면담에 앞서 연구자들이 연구의 목적과 면담 내용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들만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고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자들은 연구의 전 단계에서 자발적 참여, 고지된 동의, 비밀보장, 자료의 저장 및 보관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를 준수하였다.

면담은 2023년 7월 29일과 2024년 3월 19일 총 2회의 정식면담과 수시 논의

를 포함하여 이루어졌다. 1차 면담은 요르단 현지에서 진행되었으며 면담의 소요 시간은 약 80분이었다. 비구조화된 면담으로 ‘시리아 난민 부모의 양육 어려움은 무엇입니까?’를 포함한 시리아 난민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어려움에 대해 토의하였다. 면담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2차는 한국과 요르단의 시차를 고려하여 온라인(zoom)으로 진행되었으며 시리아 난민 부모 및 자녀의 시리아 귀환 및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소요 시간은 약 80분이었다. 면담 진행 시 연구참여자들에게 사전 동의를 얻어 면담 내용을 녹음하였으며 면담 직후 연구자가 전사하였으며 면담 자료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담 시 참여한 연구원들 및 기록한 연구 일지와 비교 및 검토하였다. 현지 기관과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부터 시리아 난민 부모의 요구에 대한 질의와 사전 정보를 교환하였으며 인터뷰 실시 이후에도 궁금한 사항이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메신저, 전화 등을 통해 추가로 정보를 지속하여 수집하였다.

3. 자료분석

자료의 분석은 주제분석법(thematic analysis)을 활용하였으며 연구자의 분석적 관찰을 귀납적으로 정리하였다. 주제분석법은 정성적 데이터 안에서 의미의 패턴으로서의 주제를 식별하고 분석하며 해석하는 분석도구로, 연구 질문에 따라 데이터의 주요한 특징을 파악하고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험적 연구에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Clarke and Braun, 2016).

주제분석의 절차는 Braun·Clarke(2006)의 6단계를 따라 진행하였다. 1단계에서는 면접 녹음자료를 반복적으로 청취하고 전사된 자료를 여러 차례 읽는 과정을 거쳤다. 2단계에서는 개방 코딩이 이루어졌다. 개방 코딩 작업은 주 연구자에 의해 코딩이 완료되었으며, 이후 동료 연구자 2인이 함께 회의하며 최종 코딩을 마무리하였다. 3단계부터는 모든 절차를 2인이 함께 진행하여, 초기 코딩을 범주화시키면서 세부 주제를 형성하고, 이를 아우르는 포괄적 주제를 탐색하였다. 4단계에서는 탐색된 주제들을 나열하고 주제 간의 위계와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 주제를 재조정하였다. 5단계는 주제에 대한 정의와 명명 작업을 시

행하는 단계였다. 분석과정의 산출물과 결과 요약본을 연구참여자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하여 Nowell 등(2017)이 제시한 주제분석 연구의 기준을 충족하고자 하였다. 마지막 6단계에서는 논문 작성 과정에서 분석 결과를 면담 내용과 잘 통합하여 제시하였고 주제가 잘 명명되었는지 재검토하였다. 시리아 난민 부모와 가족을 지원해 온 연구참여자들로부터 난민 부모의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라는 주제로 수집된 정성적 데이터에서 주요 주제를 식별하고 분석하여 해석함으로써 주제별 특징을 도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시리아 난민 부모 자녀의 정신건강

시리아 난민 부모들은 대부분 2013-14년에 발발하였던 시리아 내전 시기에 국경을 넘어 요르단에 정착하였다. 요르단 북서부 지역에 위치한 람싸(Ar-Ramtha) 지역은 시리아 국경과 가깝기 때문에 시리아 난민들의 이주를 처음 받은 요르단의 최초의 도시이며 이러한 이유로 시리아 난민의 밀도가 높은 지역이다(Kliewer et al., 2020; Beni Yonis et al., 2020). 시리아 내전으로 이동하면서 “집 더미에서 아이가 죽어도 모를 정도”였다는 말에서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알 수 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10년 정도 되었어요, 이곳(이르비드 람싸)은 20-30분 거리라 람싸로 걸어서 왔고요. 금방 전쟁 중에 걸어서 왔기 때문에 폭격을 모두 목격했고, 가족 중에 적어도 한 명은 죽었어요. 피난길에 정신 없이 집 더미에서 아이가 죽어도 모르고 올 정도로 급작스럽게 왔어요.(E활동가, 1차 면담)

아빠의 시신 사진을 자녀에게 계속 보여줄 만큼 난민 부모가 당시 겪었던 외상은 이후에 적절한 회복 과정이 없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르비드 아이들은 트라우마를 거의 겪는다는 건 들어서, 부모의 얘기를 들어서예요... 아빠를 기억해야 한다며, 아빠의 시체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계속 보여주는 엄마도 있어요.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들어서만 아는 거죠.(F활동가, 1차 면담)

특히 요르단 거주 시리아 난민들의 경우 지리적으로 시리아와 인접한 곳에 살고 있어 시리아 내전의 폭격 및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2년 전까지 인근 지역에 폭격이 있을 때에는 남겨진 가족들 걱정엔 긴장 속에 있었다. 뉴스와 전화를 통해 계속 전쟁 및 폭격의 위협에 놓여 있는 가족들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며 장기간 긴장하고 살면서 정신 건강상의 문제를 더욱 많이 경험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시리아 뉴스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시리아 현지에 남은 가족이나 친척들과 통화하면서 계속적으로 시리아 전쟁의 참상에 계속 노출되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가족들의 피해를 우려하여 긴장속에 있었으며, 아이들에 대한 케어가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4년 전에 휴전되었지만 2년 전에 전쟁 종결되기 전까지 해당 지역에 폭격이 있었거든요. 아이들의 경우 풍선 소리에 놀라는 아이들 있지만, 많이 회복되었어요.(B활동가, 1차 면담)

부모들은 회복되지 못한 전쟁 트라우마와 고향 시리아의 암울한 상황과 소식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우울감이 높고 부정적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리아 난민 자녀들 역시 우울증을 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Lakkis et al., 2020) 유사한 사례가 나오기도 하였다. 전쟁 트라우마를 겪던 자녀의 투신자살 사건은 당시 행사에 참여하였던 난민 부모들에게도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결과는 전쟁을 경험한 난민에게서 우울증과 불안 장애 등의 정신적인 징후가 장기적으로 관찰되고 있음을 기존 연구를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밝힌 Bogic 외(2015)의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난민 캠프 안팎의 시리아 난민에게서 공통적으로 관측되는 트라우마가 이들의 안녕(wellbeing) 특히 정서적 안녕을 저해하고 있었다(Beni Yonis et al., 2020; El-Khani et al., 2018).

저희가 느끼기에도 좀 제일 어둡고 우울하고, 전쟁 트라우마도 아이들 가운데 제일

많았던 집이고, 저희가 갔을 때도 제일 무기력하고 그랬던 집인데 그 집에 이제 둘째 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우울증이 심해져 결혼을 했는데 다른 지역에 살다가 엄마가 데리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문도 몇 번을 했었어요. 너무 우울증도 심하고 자살 시도도 많이 했던 딸이기 때문에..저희랑 그런 행사를 하는 중에 자살을 했어요.(E활동가, 2차 면담)

아래 C활동가는 시리아 난민 부모들이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이면을 살펴보면 부모들이 자신의 우울증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인터뷰를 진행했던 활동가들은 시리아 난민 부모가 경험한 트라우마가 자녀들에게 전이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양육 태도에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울증, 불안, 죄책감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부모의 양육 태도가 부모-자녀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Barlow et al., 2012)을 보여준다.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아마 안 됐을 경우를 많이 생각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인들은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하거나 당장 살기 힘들기 때문에 거기까지 여력이 미치지 못하죠. 제가 보기에는 미술 치료 같은 것을 해봐도 그렇고 부모님들을 만났을 때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함께 제가 보기에 되게 우울감이 깊어 보였어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시리아 난민들한테 많이 있는 것 같아요.(C활동가, 2차 면담)

자살에 대한 고백까지 하는 엄마들은 없었지만, 사실 근데 정말 여기 워낙 문화가 자기 고백을 안 하고 그런 걸 수치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안 하는 엄마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B활동가, 2차 면담)

이는 시리아 난민 부모가 요르단에 정착한 지 10년 이상의 장시간이 지났음에도 시리아 내전의 부정적 영향력이 2년 전인 비교적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시리아 부모 자녀 모두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리아 난민 부모와 아동들은 시리아 내에서 혹은 이동 과정에서 경험한 전쟁, 강제 이주, 열악한 생활 환경이라는 부정적인 경험 이외에도 인근 지역에서 내전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건강 문제는 시리아 난민의 귀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난민 부모와 자녀의 정신건강

보호와 지원, 그리고 보호적이고 안전한 양육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2. 시리아 난민 부모의 자녀 양육의 특징

시리아 난민 가정들은 다자녀 가정으로 시리아 난민 여성의 출산율은 요르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난민 여성들은 대가족과 함께 살아가며 2년 미만의 간격으로 임신을 한다(Gümüş Şekerci and Aydın Yıldırım, 2020). 시리아 난민의 경우 자녀 수가 많은 것은 사회 구조,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적 규범과 기대, 가족 및 전통 등에 영향을 받는다. 시리아 난민 여성들은 많은 자녀를 갖는 것이 사회적 존중을 가져온다고 인식하며(Demirhan et al., 2022) 이주 지역에서의 고단한 난민 정착 과정 중에서도 출산을 한다. 연구참여 활동가들이 주로 만나는 시리아 난민 가정의 경우에도 평균 자녀수가 4~5명에 이르는 다자녀 가족구조를 보여주는데 이 수치는 2020년 시리아 난민 가구의 구성원이 평균 5.96명, 평균 자녀의 수는 3.01명(캠프: 3.43명, 도시: 2.93명)으로 조사된(Stillman et al., 2022) 결과를 조금 상회한다.

난민 생활 중에서도 계속 출산해요, 난민 출산율이 요르단 출산율보다 높아요.(A활동가, 1차 면담)

시리아의 보수적인 문화로 인해서 난민 여성이 자신의 의견 피력을 꺼리고 이는 정착지에서의 가족계획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리아 여성의 경우 가족계획에서 피임법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종교적 신념, 사회 구조, 가족의 전통에 의해서 결정된다(Celikkanat and Gungormuş, 2022). 혹은 피임 결정에 여성의 의사보다는 부부의 선택에 의존한다는 선행 연구를 뒷받침 한다(Samari, 2017). 연구지역의 난민들은 시리아 다라(Daraa) 출신들이다. 다라는 다른 도시에 비해 보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시리아 다라는 다마스쿠스 남부의 소도시이며 시리아 내전의 발원지로 알려져 있다(Bakkour, 2022). 시리아의 보수적인 문화 특징 중 하나로 친족 간의 결혼이 꽤 흔하게 발생했다(Sieverding et al., 2020). 또한 경제적 어려움과 타국에서의 안전을 위해 요르단 내 시리아 여성 난

민들의 조혼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연구 지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시리아 난민이 특히 여기는 다 다라 출신인데 다라가 굉장히 더 시골적이고 보수적이고 그렇거든요. 되게 일찍 결혼하게 되고 무조건 가문끼리 결혼하는 게 더 강해요.(B활동가, 2차 면담)

난민들은 강제 이주라는 충격으로부터 자신의 국민 정체성을 지키고 차별화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성별과 개인적 특성으로 인해 손상되기도 한다(Hanmer et al., 2020). 강제 이주와 소속감의 상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체성의 상실로 이어진다(Ozkaleli, 2018). 특히 ‘난민’으로서 요르단에서 겪는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본국에서의 정체성을 더 빠르게 상실하기 때문에 시리아 난민 부모들은 자녀에게 ‘시리아인’이라는 국민 정체성을 강조하며 양육해 오고 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시리아 사람이라고 정체성을 강력하게 심어줬어요.(A활동가, 1차 면담)

Fincham(2020)에 따르면, 요르단에 있는 시리아 난민 중 고등교육을 받는 비율은 8% 밖에 되지 않으며, 이는 재정적 어려움과 요르단의 높은 생활비, 난민의 신원 확인 서류 및 이전 학업 증명 부족, 제도적 경직성, 요르단 고등교육 기관의 난민 수용 능력 부족 등 복잡한 요인에 기인한다. 시리아 난민 가정에서는 가부장제, 문화적, 종교적 특성이 상호 연관되어 영향을 미쳐 성별에 따른 사회적 위치가 정해진다(Fowler, 2015). 사회적·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난민 가정에서는 교육 및 가정 내 혜택을 받을 때 여성 자녀들이 남자 형제만큼 동등하게 지원받지 못하고 순위가 밀리게 되거나 소외감을 경험했다. 특히 여성 자녀들의 학업적 성취가 낮은 경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보상심리처럼 해주길 바라는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해 돌봄에서 소외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오빠들한테는 지원을 그래도 해주려고 하는데 자기에게까지는 그런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평들. 그리고 공부에만 집중하고 싶은데 가족이 많다 보니까 태어난 조카들을 돌봐야 하는 것들, 어떤 제2의 일손이 되어야 하는

것들, 자기만의 어떤 그런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 같이 가족이, (G 활동가, 2차 면담)

한 친구는 막내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해요. 공부도 못하고 잘하는 게 없어요. 다만 친구 관계만 좋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니까 부모로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해요. 돌봄도 별로 받지 못해요. 거의 아웃사이더처럼 그렇게, 막내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를 보면서. 아까 D선 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공부를 잘하면 무언가 보상심리처럼 자기들 안에, 자기들이 못했던 것들을 자녀들이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저도 동감하고요.(G활동가, 1차 면담)

시리아 난민 부모는 강제 이주 과정에서 가부장제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성적 정체성의 변화를 함께 경험하였다. 분쟁 이전부터 시리아는 가부장제가 자리 잡은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Roupetz et al., 2020). 이는 시리아의 가족법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이슬람 사상이 깊게 관여하고 있으며 이는 성별에 따라 법적 능력과 권한에 차별화를 부여한다(Maktabi, 2010). 그러나 난민 정착지에서 실직한 남편 대신 난민 여성이 가족의 생존을 위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현상(Yalim, and Critelli, 2023)은 난민 신분으로 타지에서 생존하기 위한 것으로 난민 여성들에게 변화된 환경에서 이중 과업을 부여하였다. 난민 여성이 다중 역할을 분담하며 생기는 갈등은 결과적으로 자녀 양육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성 교육에 대한 문화적 경시가 강제 이주라는 복잡한 상황과 맞물려 가족 내 여자아이는 남자 형제보다 역할과 기회에 제한을 받으면서(Hattar-Pollara, 2019) 시리아 난민 소녀들의 경우 자신의 주체성을 상실하고 악순환에 노출된다. 가정 내 여아에 대한 무관심과 불평등이 발생하게 되는 양육 행태는 F활동가의 말처럼 어머니 역시 부모로부터 성별에 따른 차별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던 경험이 내재된 결과일 수 있다.

어머니들은 다라에서 넘어와서 중학교를 중퇴하여 교육에 관심 없고 어린 시절 오빠들로부터 소외되었던 경험이 있거든요.(F활동가, 1차 면담)

부정적인 삶을 연속으로 겪은 양육자들의 경우 사회적 정체성의 상실이 무기력, 무관심, 우울증 등의 정신건강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한다(Smeekes et al., 2017). 가정 내에서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아들이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면서 부모의 양육 권위가 약화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이는 시리아 난민 부모가 터전을 떠나 수용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상실하는 어려움이 자녀 양육과 가족 간 위계질서, 그리고 세대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문화적으로 아들이 고등학생만 되어도 엄마보다 가정 내에서 주도권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나가서 돈을 벌어오기 때문에 엄마들을 무시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E활동가, 1차 면담)

요르단에 거주하는 시리아 난민 부모의 양육에서 다자녀 가족구조, 시리아 정체성 강조, 가부장적 특징 등이 나타났다. 시리아 난민의 본국 귀환에 대한 검토가 난민 가정의 문화적 특징, 성역할 및 난민 2세대의 정체성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시리아 난민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와 현실

난민 부모들은 변화된 환경 속에서도 자녀의 미래에 대해 기대하였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녀들이 공부를 해서 정착지 혹은 다시 시리아로 돌아갔을 때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와 열정이 있으며 특히 해당 지역 부모들의 경우 그 경향이 높았다. 시리아의 경우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까지 중동 지역에서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보여준 국가 중 하나였다(Al Hessian et al., 2016). 실제로 난민이라는 신분임에도 연구 지역의 난민 부모들은 높은 학구열을 보였다.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파구로써 자녀 교육.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난민이고 자녀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한테 기대감이 큰 거죠. 그런 스트레스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부모 난민들, 그게 있는 것 같

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계,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부모들은 애들이 공부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그 압박이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너는 커서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몇몇 부모가 있어요.(A활동가, 2차 면담)

특징이 5년 넘었는데 교육열이 높은 가족들이 많아요. 체계적으로 공부시키고, 일반적인 시리아 난민 엄마들에 비해서. 이 지역 난민 가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A활동가, 1차 면담)

그럼에도 D활동가의 말처럼 시리아 난민 부모들은 경제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무기력하며, 난민 지원금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자녀들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방임하는 어머니들 역시 많은 것이 현실이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서포트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상황이며, 남편이 경제력이 없어 스트레스가 많고 무기력하거든요, 그러니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과 방임하는 어머니들이 많아요.(D활동가, 1차 면담)

아래의 G활동가와 F활동가의 인터뷰처럼 시리아 난민 부모들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난민 자녀들이 학업에 집중하기에는 요르단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이 장애물이다. 시리아에 비해 요르단의 높은 물가와 생활비로 인해 요르단에 거주하는 시리아 난민의 93%는 기본생활을 하기 위한 빚을 지고 있다. 보통 시리아 난민들은 높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학교를 중퇴하고 경제활동에 집중하며, 연구 지역의 시리아 난민 아이들은 역시 학업과 경제적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UNHCR, 2024). 또한 시리아 난민이 요르단에서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난민의 신원 확인 서류 및 이전 학업 증명서가 필요하지만 이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서류 부족 등의 문제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얻기 어렵다(Fincham, 2020),

그거를 이제 고1 중3 이런 애들 시키는 부모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그래도 자녀 교육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방학 때는 너가 일을 해라 아빠 따라가서 일을 하든, 아니면 저 어디 식당 가서 일을 하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G활동가, 2차 면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캠프는 감옥이다’라고 생각해요. 일자리도 없고, 그런데 한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렌트비 등 경제적 어려움이 큼니다. 남자애들의 경우 오히려 졸업하는 애들이 없고, 15세만 되어도 밖으로 보내서 1달이라도 벌어들라고 해서 일하기 시작해요. (F활동가, 1차 면담)

공부는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집에 가면 집안일하고 동생들 돌보고 무언가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중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A활동가, 2차 면담)

설령 시리아 난민 자녀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요르단 내에서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난민들에게는 취업 제한이 있어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자녀들이 학업 성적이 좋거나 대학을 졸업해도 일용직이나 단순 노동직에서 일하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부모들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열심히 아이들을 서포트 해줘서 심지어 대학을 졸업해도 난민들에게는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들에게 소망이 없는 게 가장 큼니다. 부모들이 공부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C활동가, 1차 면담)

요르단 거주 시리아 난민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는 크지만 국제사회의 난민 지원 축소와 요르단의 사회적으로 제한된 일자리, 그리고 교육환경으로 인해 난민 부모들은 인도적 지원에 기대기도 그리고 경제적 자립도 어려운 상황이다.

4. 시리아 난민 부모의 자녀 양육과 시리아 귀환

시리아 내전이 금방 끝날 줄 알았지만 2011년 발발 이후 13년째 끝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연구 지역의 시리아 난민 부모들은 내전이 금방 끝날 것으로 기대하며 요르단에 ‘일시적’으로 정착하고 적응하였다. 언제라도 귀환할 준비를 하며 시리아 난민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시리아인’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며 시리아 귀환을 소망해 왔다.

엄마들은 시리아로 돌아가서 이런 거 하고 싶다고 자기의 소망을 얘기하거든요.(A 활동가, 1차 면담)

그러나 현실은 부모도 자녀도 요르단에서 이미 10년 이상 거주하며 요르단의 '신식 문화'에 익숙해졌다. 시리아 난민 부모들은 시리아를 떠난 지 10여 년이 지나고 요르단에서도 자녀를 출산하면서 요르단의 생활 방식에 익숙해졌고 자녀들의 교육과 정체성은 요르단의 상황에 맞추어졌다. 일시적 정착이 계속 연장되면서 무기력감도 심해졌다. 시리아에서의 불안정한 삶에 대한 걱정도 귀환을 막는 요인이다. 부모들은 요르단 내 자녀들이 난민 신분에서 따른 취업 제한, 사회적 차별,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교육과 징집에 대한 불안 등의 이유로 시리아로 되돌아가려는 의지가 낮았다.

다라는 시골이어서 요르단의 신식 문화에 익숙해져서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아요. 애들 있는 가정은 돌아가면 교육시설이 무너져서 교육에 대한 걱정이 있으며, 17세 이상이면 군대 징집 대상이므로 아이들이 있는 집안은 시리아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E활동가, 2차 면담)

시리아가 요르단보다 더 잘살고, 자기 집도 있고, 자기 땅도 있었기에 현재 시리아 난민들의 박탈감이 크거든요. 과거에는 요르단 욕하기 바빴으나, 지금은 무기력하며, 90% 이상 시리아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D활동가, 2차 면담)

난민 지원이 매년 줄어들면서 겨우 버텨왔지만 이제 곧 끊어진다는 소식에 시리아 난민 부모들은 경제적 압박을 매우 크게 받고 있다. 이러한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기약 없는 유럽행에 차출되기만을 기다리는 가족들도 있었다. 이처럼 '로또'와 같은 차출 사례는 가족들이 요르단에 심리적으로 정착하지도 또 시리아로 귀환하지도 못하도록 하기도 한다.

UN에서 쿠폰을 제공해 왔는데 이제 지원이 끊어진다고 하니 경제적 압박이 엄청납니다. 이민을 가 있거나 돈이 있는 친척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고, 아이는 너무 많고, 남편은 직장이 없고, 도움은 끊기는 사면초가의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부지런한 어머니들이 있고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A활동가, 1차 면담)

시리아 전쟁이 끝나면 시리아로 돌아가려고 했고, 일부는 빠른 판단을 하여 해외로 나가 난민 인정을 받았고, 나가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경우를 부러워하기도 하죠. 유엔에서 차출해서 난민으로 유럽을 가는 가족 케이스가 있어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케이스죠. 네덜란드에 아빠부터 불법으로 가서 가족들을 데려가는 케이스가 있었고요.(B활동가, 2차 면담)

시리아 난민 부모들은 시리아로 귀환한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시리아 내부의 불안정한 사정을 듣게 되며, 자녀들과의 시리아 귀환은 대부분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다. 고령자이거나 시리아에 남겨진 가까운 가족이 있는 일부의 경우 귀환을 준비하기도 하지만 시리아 난민들의 대부분이 요르단에서 정착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절대 안 돌아가는’ 상황이다.

시리아로는 거의 안 돌아가요. 왜냐하면 10대 후반 아이들, 남자 자녀를 가진 가정이 가면 군대에 징집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고, 나이가 아주 많아서 마지막으로 고향을 보러 가겠다거나, 아니면 노부모가 있어서... 정말 그거 외에는 그 외에는 정상적인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가지 않아요. 지금 너무 어려워요. 전기도 7시간마다 1시간밖에 안 나오고, 물가도 힘들고요. 월급도 너무 적어서 너무 힘들게 살죠.(B활동가, 2차 면담)

저희 같이 일했던 미술 선생님이 한 6개월 전에 가셨는데 거기가 사회주의 체제고 감시를 받고. 그리고 예전에 전쟁 당시 반정부 편에 섰던 사람들을 밤에 스파이를 정부에서 보내서 죽이거나 그래서 공포심이 커요. 그래서 밤에 혼자 절대 어른들도 안 다니고 정말 감시를 받는데.(B활동가, 2차 면담)

보통 이제 젊은 세대들은 절대 안 돌아가는 거죠. 절대로. 오히려, 그런 상황.(D활동가, 2차 면담)

시리아 난민 부모들은 난민 지원금이 끊어지는 상황에서도 시리아에서의 자녀 징집 및 교육의 문제, 안전에 대한 불안, 문화적 차이 등의 문제로 자녀들과

의 시리아 귀환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는 귀환에 대한 의지가 낮았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요르단 거주 시리아 난민 지원 중단 및 시리아 귀환에 대한 글로벌 컴팩트와 국제적 논의가 커지는 시점에 요르단 거주 시리아 난민 가정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활동가를 대상으로 시리아 난민 부모의 자녀 양육과 시리아 귀환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리아 난민 부모와 자녀가 요르단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외상이나 우울 등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시리아 난민 부모의 수용국에서 겪는 자녀 양육에서의 실질적인 어려움 외에도 최근까지도 시리아 내전의 참상에 노출되었던 외상 경험에 따른 트라우마와 심리적 불안, 우울 등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시리아 난민 부모가 자녀에게 외상을 재경험하도록 하는 방식의 의사소통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 의사소통이 자녀의 정신건강과 부모-자녀 간의 애착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다. 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문제행동과 같은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 부모의 정신건강 혹은 경제적 문제 등의 요인에 기인하며 결과적으로 자녀에 대한 의사소통을 통해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미칠 수 있는 정서적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것이 난민 부모의 자녀 양육 어려움을 지원하는 중요한 방법일 수 있다. 난민 가족들의 심리적 상해가 현재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한다는 결과에 주목하여 시리아 난민 부모가 겪는 심리사회적 어려움에 대해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시리아 귀환 논의와 난민 지원금 축소로 인해 시리아 난민 부모들이 요르단 내에서 주류 사회에 편입하지 못하고 제한적인 경제생활을 하고 있으며 시리아로 돌아갈 수도, 요르단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도 못하는 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주양육자의 역할 수행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Parke et al., 2004). 따라서 시리아 난민의 귀환에 대한 논의는 시리아 난민 부모와

자녀의 심리사회적인 지원 및 개입 방안과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시리아 난민 부모를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자녀의 정체성, 성 역할 구조 및 가족 규모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구체적인 양육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리아 난민 가족의 성 역할이 요르단 내에서 자녀의 성 정체성과 형제 자매간의 관계 형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인식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르단 거주 시리아 난민 부모들의 자녀와의 관계 형성 및 자녀의 문제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 부모교육지원서비스 요구에 대한 추후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요르단에 거주하는 시리아 난민 부모의 양육에서 나타나는 다자녀 가족구조, 자녀의 정체성 변화, 가부장적 특징과 가족 역할 변이 등은 시리아 난민의 정착과 귀환 문제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인일 수 있다. 시리아 난민 대상의 양육지원뿐만 아니라 본국 귀환에 대한 검토가 난민 가정의 문화적 특징, 성 역할 및 난민 2세대의 정체성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시리아 난민 부모의 자녀 수가 난민 부모의 자녀 양육에 영향을 주는 요인일 수 있다. 양육 행동에 대한 요르단과 시리아의 문화적 차이, 혹은 양육 관련 지식이나 정보의 부재 등으로 상당수의 시리아 난민 부모들이 자녀의 발달적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거나 방임하는 경향이 있어서 정서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처하는 난민 자녀들이 많은 실정이다. 실제로 요르단에 정착한 시리아 난민들은 자녀를 돌보아 줄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여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므로 추후 자녀 수에 따라 시리아 난민 부모가 인식하는 양육의 어려움이 상이한지 확인하고 이에 따른 도움과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시리아 난민들을 위한 난민 정책, UN의 난민 지원금이 삭감되고 난민 부모들은 고향인 시리아로 돌아가라는 권고를 받고 있지만 시리아로 귀환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난민 부모들에게는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시키고 자녀 양육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난민들은 시리아 귀환을 포기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나 글로벌컴팩트를 통해 지원금 삭감 등 경제적 어려움이 난민 부모의 양육 어려움을 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난민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족 내 긍정적 상호작용을 방해하고(Sim et al., 2018) 어려운

경제 상황이 난민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 결과(Akesson, Bree, and Dena Badawi, 2020; Akesson, Bree, and Cindy Sousa, 2020)를 고려할 때 요르단 거주 시리아 난민에게 현재의 난민 글로벌컴팩트와 주변 국가들의 귀환 정책은 시리아 및 요르단 내 시리아 난민 현장 상황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요르단 내 시리아 난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부족한 가운데 난민 부모 및 가정을 지원하고 있는 NGO 활동가를 대상으로 도심 난민 부모와 가정의 자녀 양육 현황을 파악하고 실천적 함의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시리아 난민 부모의 정신건강, 자녀 관계의 어려움, 난민 정책 변화에 따른 경제적 원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을 확인함으로써 무엇보다 시리아 난민 귀환 정책이 국가 간, 국제관계의 논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 보다 이미 10년 이상 요르단에서 가족을 형성하고 적응해 온 시리아 난민 가족과 자녀 세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자녀 양육 지원에 있어 학습 및 취업 지원 등의 실질적인 지원과 더불어 시리아 난민 가족의 가족 구조 및 역할의 변화와 가족 생애주기 측면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과 함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국제적으로 시리아 난민의 시리아 귀환이 적극적으로 논의되는 시점에, 요르단에 정착한 시리아 난민 가정을 지원하는 활동가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해 사전 조사 연구의 주요한 결과와 시의성 있는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제3의 관찰자인 활동가의 시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난민 부모를 대상으로 면담이 직접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아쉽다. 한편 아동의 생태체계적 환경에서 개인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통상 개인과 가족이지만, 이 연구에서 글로벌컴팩트와 국제 레짐의 변화와 같은 사회체계의 강한 영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인간 발달의 위험 요인 중 특별히 외체계 요인에서 난민 부모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친다(D'Abreu et al., 2021)는 사실과 유사한 결과이다. 따라서 추후 후속 연구를 통해 요르단 거주 시리아 난민 부모들을 대상으로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해당 변인들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투고일: 2024년 6월 15일 | 심사일: 2024년 10월 1일 | 게재확정일: 2024년 11월 27일

참고문헌

- Akesson, Bree, and Dena Badawi. 2020. "My Heart Feels Chained': The Effects of Economic Precarity on Syrian Refugee Parents Living in Lebanon," in Charles W. Greenbaum, Muhammad M. Haj-Yahia, and Carolyn Hamilton ed. *Handbook of Political Violence and Children: Psychosocial Effects, Intervention, and Prevention Policy*. New York: Oxford Academic.
- Akesson, Bree, and Cindy Sousa. 2020. "Parental Suffering and Resilience among Recently Displaced Syrian Refugees in Lebano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9: 1264-1273.
- Al Hessian, Mohammed, Stephanie Bengtsson, and Judith Kohlenberger. 2016. "Understanding the Syrian Educational System in a Context of Crisis." *Vienna Institute of Demography Working Papers* No. 09/2016.
- Al-Fahoum, Amjed S., Marianna Diomidous, Aggelos Mechili, Olga Archangelidi, Panos Theodoromanolakis and John Mantas. 2015. "The Provision of Health Services in Jordan to Syrian Refugees." *Health Science Journal* 9(2): 1-7.
- Al-Rousan, Tala, Zaker Schwabkey, Lara Jirmanus, and Brett D. Nelson. 2018. "Health Needs and Priorities of Syrian Refugees in Camps and Urban Settings in Jordan: Perspectives of Refugees and Health Care Providers." *Eastern Mediterranean Health Journal* 24(3): 243-253.
- Bakkour, Samer. 2022. "Daraa and the Altered Trajectory of the Syrian Crisis." *Asian Journal of Middle Eastern and Islamic Studies* 16(2): 225-242.
- Barbelet, Veronique, and Cecil Wake. 2017. "Livelihoods in Displacement: From Refugee Perspectives to Aid Agency Response." *Humanitarian Policy Group Report* 2017 September.
- Barlow, Jane, Nadja Smailagic, Nick Huband, Verena Roloff, and Cathy Bennett. 2012. "Group-Based Parent Training Programmes for Improving Parental Psychosocial Health." *Campbell Systematic Reviews* 8(1): 1-197.

- Beni Yonis, Othman, Yousef Khader, Alaa Jarboua, Maariyha Majed Al-Bsoul, Neme Al-Akour, Mahmoud A. Alfaqih, Moawiah M. Khatatbeh, and Basil Amarnah. 2020.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mong Syrian Adolescent Refugees in Jordan." *Journal of Public Health* 42(2):319-324.
- Bogic, Marija, Anthony Njoku, and Stefan Priebe. 2015. "Long-Term Mental Health of War-Refugees: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BMC International Health and Human Rights* 15 : 1-41.
- Braun, Virginia, and Victoria Clarke.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 Çelikkanat, Şirin, and Zeynep Güngörmüş. 2022. "A Qualitative Study on the Knowledge and Opinions of Syrian Women Regarding Family Planning." *Social Work in Public Health* 37(3): 274-286.
- Clarke, Victoria, and Virginia Braun. 2016. "Thematic Analysis."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2(3): 297-298.
- Courtois, Anne-Claire. 2016. "Les Femmes Chefs de Ménage à Bujumbura: Marginalité, Violences et Résilience." Ph.D. Diss., Université de Pau et des Pays de l'Adour.
- D'Abreu, Ana, Sara Castro-Olivo, Sarah K Ura, and Jessica Furrer. 2021. "Hope for The Future: A Qualitative Analysis of the Resettlement Experience of Syrian Refugee Adolescents and Parents".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42(2): 132-156.
- Dalgaard, Nina, Marie Høgh Thøgersen, Mette Skovgaard Væver, and Edith Montgomery. 2020. "Family Violence in Traumatized Refugee Families: A Mixed Methods Study of Mother/Child Dyadic Functioning, Parental Symptom Levels and Children's Psychosocial Adjustment." *Nordic Psychology* 72(2): 83-104.
- Dehnel, Rebecca, Heyam Dalky, Subashini Sudarsan, and Wael K. Al-Delaimy. 2022. "Resilience and Mental Health among Syrian Refugee Children in Jordan." *Journal of Immigrant and Minority Health* 24(2): 420-429.
- Demirhan, İlknur, Sibel Peksoy Kaya, Sevil Sahin and Sena Kaplan. 2022. "Syrian Refugee Women's Breastfeeding Behaviors and Use of Contraceptive Methods: A Qualitative Study." *Women · Health* 62(8): 741-749.

- Doocy, Shannon, Emily Lyles, Laila Akhu-Zaheya, Ann Burton, and Gilbert Burnham. 2016. "Health Service Access and Utilization among Syrian Refugees in Jordan." *International Journal for Equity in Health* 15: 1-15.
- El-Khani, Aala, Fiona Ulph, Sarah Peters, and Rachel Calam. 2017. "Syria: Coping Mechanisms Utilised by Displaced Refugee Parents Caring for Their Children in Pre-Resettlement Contexts." *Intervention* 15(1): 34-50.
- El-Khani, Aala, Fiona Ulph, Sarah Peters, and Rachel Calam. 2018. "Syria: Refugee Parents' Experiences and Need for Parenting Support in Camps and Humanitarian Settings." *Vulnerable Children and Youth Studies* 13(1): 19-29.
- El-Khani, Aala, Kim Cartwright, Cheryl Ang, Elizabeth Henshaw, Mishaal Tanveer, and Rachel Calam. 2018. "Testing the Feasibility of Delivering and Evaluating a Child Mental Health Recovery Program Enhanced with Additional Parenting Sessions for Families Displaced by the Syrian Conflict: A Pilot Study." *Peac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Psychology* 24(2): 188-200.
- Fazel, Mina, and Alan Stein. 2002. "The Mental Health of Refugee Children." *Archives of Disease in Childhood* 87(5): 366-370.
- Fincham, Kathleen. 2020. "Rethinking Higher Education for Syrian Refugees in Jordan, Lebanon and Turkey." *Research in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Education* 15(4): 329-356.
- Fowler, Marsha Diane Mary. 2015. *Guide to Nursing's Social Policy Statement: Understanding the Profession from Social Contract to Social Covenant*. Silver Spring, MD: American Nurses Association.
- Giacco, Domenico, Neelam Laxhman, and Stefan Priebe. "Prevalence of and Risk Factors for Mental Disorders in Refugees." *Seminars in Cell·Developmental Biology* 77: 144-152.
- Gillespie, Sarah, Jasmine Banegas, Joseph Maxwell, Athena C. Y. Chan, Neveen Ali-Saleh Darawshy, Akash R. Wasil, Scott Marsalis, and Abigail Gewirtz. 2022. "Parenting Interventions for Refugees and Forcibly Displaced Families: A Systematic Review."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25: 395-412.
- Gümüş Şekerci, Yasemin, and Tuğba Aydın Yıldırım. 2020. "The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urs of Syrian Refugee Women towards Family

- Planning: Sample of Hata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Practice* 26(4): e12844.
- Hanmer, Lucia, Eliana Rubiano, Julieth Santamaria, and Diana J. Arango. 2020. “How Does Poverty Differ among Refugees? Taking a Gender Lens to the Data on Syrian Refugees in Jordan.” *Middle East Development Journal* 12(2): 208-242.
- Hattar-Pollara, Marianne. 2019. “Barriers to Education of Syrian Refugee Girls in Jordan: Gender-Based Threats and Challenge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51(3): 241-251.
- Khadra, Maysa, Haya H. Suradi, Justin Z. Amarin, Nabila El-Bassel, Neeraj Kaushal, Ruba M. Jaber, Raeda Al-Qutob, and Anindita Dasgupta. 2022. “Risk Factors for Miscarriage in Syrian Refugee Women Living in Non-Camp Settings in Jordan: Results from the Women Aspire Cross-Sectional Study.” *Conflict and Health* 16(1): 32.
- Khamis, Vivian. 2019.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Emotion Dysregulation among Syrian Refugee Children and Adolescents Resettled in Lebanon and Jordan.” *Child Abuse·Neglect* 89: 29-39.
- Khamis, Vivian. 2022. “Psychological Distress and Neuroticism among Syrian Refugee Parents in Post-Resettlement Contexts.”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7(5): 1149-1164.
- Kliwer, Wendy, Khalid A. Kheirallah, Caroline O. Cobb, Jomana W. Alsulaiman, Fawaz Mzayek, and Hashem Jaddou. 2021. “Trauma Exposure an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among Syrian Refugee Youth in Jordan: Social Support And Gender As Modera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56(2): 199-207.
- Laible, Deborah. 2004. “Mother-Child Discourse in Two Contexts: Links with Child Temperament, Attachment Security, and Socioemotional Compe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40(6): 979-992.
- Lakkis, Najla, Mona Osman, Lara Aoude, Cosette Maalouf, Hanane Issa, and Ghassan Issa. 2020. “A Pilot Intervention to Promote Positive Parenting in Refugees from Syria in Lebanon and Jordan.” *Frontiers in Psychiatry* 11: 257.
- Lyons-Ruth, Karlen. 2003. “The Two-Person Construction of Defenses: Disorganized Attachment Strategies, Unintegrated Mental States, and Hostile/

- Helpless Relational Processes.” *Journal of Infant, Child, and Adolescent Psychotherapy: JICAP* 2: 105-114.
- Maktabi, Rania. 2010. “Gender, Family Law and Citizenship in Syria.” *Citizenship Studies*, 14(5): 557-572.
- Miles, Shannon R, Deleene S. Menefee, Jill Wanner, Andra Teten Tharp, and Thomas A. Kent.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 Dysregulation and Impulsive Aggression in Veterans with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1(10): 1795-1816.
- Nowell, Lorelli S., Jill M. Norris, Deborah E. White, and Nancy J. Moules. 2017. “Thematic Analysis: Striving to Meet the Trustworthiness Criteria.”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Methods*. <https://doi.org/10.1177/1609406917733847>
- Oppedal, Brit, Serap Özer, and Selçuk R. Şirin. 2018. “Traumatic Events,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Syrian Refugee Children in Turkish Camps.” *Vulnerable Children and Youth Studies* 13(1): 46-59.
- Rehr, Manuela, Muhammad Shoaib, Sara Ellithy, Suhib Okour, Cono Ariti, Idriss Ait-Bouziad, Paul van den Bosch, Anais Deprade, Mohammad Altarawneh, Abdel Shafei, Sadeq Gabashneh, and Annick Lenglet. 2018. “Prevalence of Non-Communicable Diseases and Access to Care Among Non-Camp Syrian Refugees in Northern Jordan.” *Conflict and Health* 12: 1-14.
- Rizkalla, Niveen, and Steven P. Segal. 2018. “Well-Being and Posttraumatic Growth among Syrian Refugees in Jordan.” *Journal of Traumatic Stress* 31(2): 213-222.
- Roupetz, Sophie, Stephanie Garbern, Saja Michael, Harveen Bergquist, Heide Glaesmer, and Susan A. Bartels. 2020. “Continuum of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Risks among Syrian Refugee Women and Girls in Lebanon.” *BMC Women’s Health* 20: 1-14.
- Sá, Fernando Henrique de Lima, Vitória Waikamp, Lúcia Helena Machado Freitas, and Fernanda Lucia Capitanio Baeza. 2022. “Mental Health Outcomes in Syrian Refugees: A Systemat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68(5): 933-953.
- Samari, Goleen. 2017. “Syrian Refugee Women’s Health in Lebanon, Turkey, and

- Jordan and Recommendations for Improved Practice.” *World Medical·Health Policy* 9(2): 255-274.
- Sieverding, Caroline, Nasma Berri, and Caitlyn Keo. 2020. “Persistence and Change in Marriage Practices among Syrian Refugees in Jordan.” *Studies in Family Planning* 51: 225-249.
- Sim, Amanda, Lucy Bowes, and Frances Gardner. 2018. “Modeling the Effects of War Exposure and Daily Stressors on Maternal Mental Health, Parenting, and Child Psychosocial Adjustment: A Cross-Sectional Study with Syrian Refugees in Lebanon.” *Global Mental Health* 5: e40.
- Sirin, Selcuk R, and Lauren Rogers-Sirin. 2015. *The Educational and Mental Health Needs of Syrian Refugee Children*. Washington, DC: Migration Policy Institute.
- Smeekees, Anouk, Maykel Verkuyten, Elif Çelebi, Ceren Acartürk, and Samed Onkun. 2017. “Social Identity Continuity and Mental Health Among Syrian Refugees in Turkey.”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52: 1317-1324.
- Stillman, Sarah, Sandra V Rozo, Abdulrazzak Tamim, I Bailey Palmer, Emma Smith, and Edward Miguel. 2022. “The Syrian Refugee Life Study: First Glance.”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38(3): 625-653.
- Swedberg, Richard. 2020. “Exploratory Research.” *The Production of Knowledge: Enhancing Progress in Social Science* 2(1): 17-41.
- Van Raemdonck, An. 2023. “Syrian Refugee Men in ‘Double Waithood’: Ethnographic Perspectives on Labour and Marriage in Jordan’s Border Towns.” *Gender, Place·Culture* 30(5): 692-713.
- Yalim, Asli Cennet, and Filomena Critelli. 2023. “Gender Roles among Syrian Refugees in Resettlement Contexts: Revisiting Empowerment of Refugee Women and Needs of Refugee Men.”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96, 102670.

1차 자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3. “글로벌 불평등 시대의 난민과 이민자.” 한국개발연구원(검색일: 2024.10.27.)
- 김동욱. 2024. “‘잊힌 전쟁’ 시리아 내전 13년째…사망자 50만명 넘었다.” 연합뉴스(검색일: 2024.6.12.).

- 김승욱. 2021. “터키 "시리아 난민 47만 명 본국으로 돌아가".” 연합뉴스(검색일: 2024.5.1.).
- 김계환. 2023. “이라크 총리, 12년만에 시리아 방문...“난민귀환·서방제재 논의.” 연합뉴스(검색일: 2024.5.1.).
- 주요르단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https://overseas.mofa.go.kr/jo-ko/>)(검색일: 2024.4.12.)
- Barbelet, Veronique, and Caitlin Wake. 2017. “The Lives and Livelihoods of Syrian Refugees in Turkey and Jordan.” *Summary Report,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https://www.odi.org/sites/odi.org.uk/files/resourcedocuments/11344.pdf> (검색일: 2024.6.10.).
- Kouassi Yeboua, and Mustapha Jobarteh. 2024. “Brundi Geographic Futures” <https://futures.issafrica.org/geographic/countries/burundi/> (검색일: 2024.11.05.).
- Khaled Abou Zahr. 2024. “Syrians’ Right to Return Should be an International Priority”. *ARABNEWS* (arabnews.com) (검색일: 2024.6.11.).
- UNHCR. 2023. “Refugee Population Statistics Database.” UNHCR. <https://www.unhcr.org/refugee-statistics/> (검색일: 2024.4.30.).
- UNCHR. 2024. “UNCHR-Syria Arab Republic: Regional Refugee and Resilience Plan 2024.” UNHCR. <https://reporting.unhcr.org/>(검색일: 2024.4.30.).
- WFP, 2023. “Funding Crunch Forces WFP to Scale Back Food Assistance to Refugees in Jordan.” <https://www.wfp.org/news/funding-crunch-forces-wfp-scale-back-food-assistance-refugees-jordan> (검색일: 2023.9.20.).
- Xinhua. 2021. “Syrian Refugees in Jordan Worried about Upcoming Cut in UN Food Aid.” *Global Times* (<https://www.globaltimes.cn/>) (검색일: 2024.5.1.).

Abstract

Parenting of Syrian Refugees Living in Jordan and Their Return to Syria

Heui Jeong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Ye Won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Da Hee Shi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explore Syrian refugee parents' experiences of rearing their children in Jordan and returning to Syria amidst increasing international debate on ending assistance to Syrian refugees in Jordan and their return to Syria. To address this,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seven Korean refugee activists affiliated with the Korean Cultural Center in Jordan, which provides humanitarian assistance to Syrian refugee families in Irbid and Amman, Jordan, uncovering the following: First, Syrian refugee parents, who have been resettled for over a decade, are still suffering from the trauma of war and violence and require psychological and parenting support which takes into account their mental health. Second,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gender role structures and identities, family size, as well as specific parenting support that takes into account the cultural specificities of Syrian refugee parents are needed when providing support services to Syrian refugee parents. Third, the Global Compact for Refugees and the return policy for Syrian refugees in Jordan need to take into account the realities of the situation of Syrian refugee families in both Syria and Jorda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explores parenting and the return to Syria by Syrian refugee parents, providing practical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support for Syrian refugee parents and children.

Keywords | Syrian Refugee Parents, Jordan, Parenting, Returning Syrians, Refugee Global Compact